

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⑤	5	③
6	③	7	⑤	8	③	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⑤	20	①
21	①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①	27	④	28	②	29	⑤	30	④
31	⑤	32	②	33	②	34	①	35	②
36	⑤	37	⑤	38	①	39	②	40	③
41	③	42	③	43	①	44	④	45	⑤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발표 소재인 병풍의 장점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나, 다른 대상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병풍’ 개발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병풍을 발표 소재로 선택했다는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그림의 예, 4문단에서 문자도 병풍의 소재와 관련된 효자 설화의 예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④ 1문단과 4문단에서 질문을 한 후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살펴거나 대답을 듣고 반응하는 등, 발표자와 청중의 상호 작용이 나타나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앞으로 여러 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1]은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서 실내의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 1]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에서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병풍인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에서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식 때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인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에서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의 그림이 어우러진 병풍인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반응을 이해한다.

발표를 듣고 자신이 카페에서 본 창문의 구조와 병풍의 구조를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병풍의 현대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발표를 듣기 전 지녔던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⑤ 카페의 창문 구조에 대한 내용은 배경지식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가)에서 동아리 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안내문을 작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동아리 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캠페인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② 동아리 회장은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발화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부원 1, 2에게 제안하고 있다. ③ 동아리 회장은 네 번째 발화에서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문을 작성하자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동아리 회장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안내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부원 1, 2에게 구체적인 발화를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A]는, 나누어 줄 모종의 수가 부족하여 걱정이라는 부원 1의 우려에 대해, 300명의 학생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 식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종 300개로도 충분하다며 부원 2가 부원 1의 우려를 해소하는 발화이다. 또 [B]는, 안내문에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하자는 부원 2의 견해에 대해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문의 제한된 공간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원 1의 우려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오답풀이] ① [A]에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지만 [B]에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A]에는 부원 1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부원 1의 의견을 보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발화이다. ④ [A]에는 부원 1이 제시한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회의 참가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에서 부원 1과 부원 2의 견해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부원 1과 부원 2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발화라고 할 수 없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가)에서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안내문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원 2는 다섯 번째 발언을 통해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에서 모종 나누기 행사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동아리 회장이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고 부원 1, 2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 세 종류의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며 수시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동아리 블로그를 안내해도 좋겠다는 부원 2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부분에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증이 생기면?’이라는 항목에 동아리 블

로그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양집사’라는 용어처럼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것이라는 부원 1의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제목에 ‘식집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의 신문 자료에서 최근 들어 반려 동물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반려 식물이 생명을 잃거나 버려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나)를 보완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는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 최근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나)의 적절한 보완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보기>에서 반려 동물과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보완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는 반려 식물의 장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완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쓴이의 글쓰기 방법을 파악한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학교의 모습과 교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플라타너스 길을 묘사하고 있으나,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오토바이의 먼지를 털고, 경적을 울리고, 시동도 걸어 보고, 해진 안장을 툭툭 치는 아버지의 행동을 나열해 오토바이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빠방’, ‘부르릉’, ‘부릉부릉 부릉’ 등의 의성어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대한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인자한 미소를 띤 고목들’과 같은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중학교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에 태워 등교를 시켜주었던 일, 점심시간에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했던 일 등을 제시하여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생성 방법을 이해한다.

중간 부분에서 ‘힘든 오토바이 배달로 늘 고단해하시던 아버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내용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지만 초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우리 집 마당 창고에 있는 낡고 작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학교 교실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이는 플라타너스 길이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늦잠을 잔 ‘나’를 아침에 급히 오토바이로 학교에 태워다 주시고, 교문에 들어설 때까지 ‘나’를 지켜보시다가 돌아서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내게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것 같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의 내용을 수정한다.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는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신 것에 내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유를 활용한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 ③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로 볼 수도 있으나,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배달을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와 관련성이 있으나, 비유를 활용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추억의 서랍장’이라는 비유를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지만 ‘나’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용언의 어간, 어미의 특징을 이해한다.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로,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신다’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ㄴ-’이 결합해 있다.

[오답풀이] ① 어미는 어간의 뒤에 결합한다. ② 어간이나 어미가 하나의 용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미가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③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다. ④ 어말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12. [출제의도] 용언의 어간, 어미의 종류와 결합 양상을 이해한다.

‘뜨는’은 어간 ‘뜨-’에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의 용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뜨는’은 뒤에 오는 체언인 ‘해’를 꾸며준다. 즉, ‘뜨는’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 부사가 아니라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알다’의 어간 ‘알-’에 어미 ‘-니’가 결합할 때는 ‘아니’와 같이 쓰이면서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② ‘맛있다’의 어간은 ‘맛있-’이다. 또한 여기에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끓다’의 어간은 ‘끓-’이다. 또한 여기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면서 앞뒤 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⑤ ‘떡다’의 어간은 ‘떡-’이다. ‘떡었다’에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인 어말 어미 ‘-다’가 있으며, 선어말 어미 ‘-었-’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최소 대립쌍을 이해한다.

㉠에는 앞사람이 말한 ‘달’, 뒷사람이 말한 ‘굴’ 모두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둘’과 ‘달’은 [ㅌ]와 [ㄴ]의 차이가 있고, ‘둘’과 ‘굴’은 [ㄷ]과 [ㄱ]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둘’과 ‘달’, ‘둘’과 ‘굴’은 최소 대립쌍이다.

[오답풀이] ①, ⑤ ‘꿀’과 ‘꿀’은 뒤의 ‘굴’과 최소 대립쌍이지만, 앞의 ‘달’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②, ④ ‘답’과 ‘말’은 앞의 ‘달’과 최소 대립쌍이지만, 뒤의 ‘굴’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성을 이해한다.

수정 문장 ‘민우는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불렀다.’는 ‘민우와 나’가 주체가 되어 ‘윤서’를 불렀음을 의미한다. 전달 의도처럼 ‘나와 윤서’를 부른 사람이 ‘민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민우는 혼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로 문장을 수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② ㄱ의 중의적 문장은 ‘관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음.’과 ‘관객 중 누구도 도착하지 않음.’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수정 문장은 중

의성 해소를 위해 조사 ‘는’을 추가하여 부정 표현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관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③, ④ ㄴ의 중의적 문장은 ‘전학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임.’과 ‘친구가 전학 온 것이 어제임.’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수정 문장은 중의성 해소를 위해 ‘어제’의 위치를 변경해 ‘어제’의 수식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전학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임.’으로 해석된다.

15. [출제의도] 방향 반의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아래’는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로 쓰여 ‘열등함’의 의미를 갖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아래’가 ‘열등함’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신분, 지위,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낮은 쪽’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오답풀이] ① ‘위’는 ‘신분, 지위,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높거나 나은 쪽’이라는 의미로 쓰여 ‘우월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앞서다’는 ‘발전이나 진급, 중요성 따위의 정도가 남보다 높은 수준에 있거나 빠르다.’라는 의미로 쓰여 ‘우월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뒤떨어지다’는 ‘발전 속도가 느려 도달하여야 할 수준이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열등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⑤ ‘뒷걸음질’은 ‘본디보다 뒤지거나 뒤떨어짐.’이라는 의미로 쓰여 ‘열등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16~18] (현대시) (가)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1」, (나) 손택수, 「밤물 눈금」

(가)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1」

마당에 누워 고향의 하늘을 올려다보던 화자가 별을 통해 있고 있었던 할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며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하얗게 핀 메밀꽃과 온 하늘에 가득한 별이 지닌 시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바람과 놀던 화자의 어린 시절 기억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시금 깨닫는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 지상과 우주의 연결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나) 손택수, 「밤물 눈금」

손가락 주름을 따라 밤물을 맞추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떠올린 유년의 기억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위안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밤물의 오르내림 속에서 화자가 떠올린 가난한 시절의 기억은 현재 화자의 눈에 보이는 듯, 귓가에 들리는 듯 선명하다.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비로소 얼굴보다 늙은 자신의 손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의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킁속으로 /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는 걱정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고, (나)에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가 ‘마당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나)의 화자가 ‘밤물’을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게 하는 모습에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엿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늙어름’을 통해 계절감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의 ㉠은 ‘나’가 어린 시절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놀던 곳이라는 점에서 동심이 허

용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은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을 만드는 가난한 동네이다. 화자에게 이 공간은 ‘한 끼’를 아끼기 위해 친구 집에 가던 ‘소년’, 곧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긴 곳이다. 따라서 ㉡은 가난으로 인해 화자에게 성숙함이 요구되었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화자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놀고 있는 곳이므로 화자가 벗어나려는 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은 가난으로 인해 화자를 일찍 철들게 하는 곳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② ㉠은 화자가 할머니와 함께하며 성장한 곳이므로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은 어린 화자가 바람과 장난치며 놀던 곳이므로 화자의 슬픔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고, ㉡은 화자가 유년을 보낸 곳으로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⑤ ㉠은 화자가 어린 시절에 놀던 공간이므로 화자가 경험한 적 없는 가상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가 살아생전과 같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여전히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달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의 ‘커서도 덜 자’란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하는 것은 밥을 지을 때 밥물을 맞추는 일에 어려움을 겪던 화자가 점차 익숙하게 밥물을 맞추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험 자체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마당에 누워 고향의 ‘하늘’을 보고 있다. ‘하늘’의 별은 화자에게 어릴 적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메밀꽃을 떠오르게 한다. 화자는 할머니가 저승으로 가신 후에도 ‘하늘’의 메밀밭에서 살아생전과 같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여전히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다. ④ (가)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는 하늘의 별을 통해 화자에게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손가락 주름’으로 ‘밤물’을 맞추는 행위는 화자에게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모두 회상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가 ‘별’에서 어릴 적 ‘메밀꽃’을 떠올리며 현재에도 자신이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화자가 현재 자신의 주름진 손에 여전히 ‘가난한 지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모두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22] (사회) 한진수, 「경기 살리기大作전」

경기가 침체되면 국가는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은 흔히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을 ‘유동성이 넘쳐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 경우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국가는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시중 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인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가게나 기업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부르며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고

재정 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5문단에 케인스가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만,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의 한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2문단에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③ 3문단에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과, 4문단에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이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언급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한다. 2문단에 따르면 유동성이 넘쳐 날 경우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오답풀이] ②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③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감소한다. 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이때 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이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이란 시중에 충분히 공급된 유동성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시중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을 때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한 것은 맞지만, 유동성이 넘쳐 나는 상황이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이란 충분한 유동성으로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경기 과열로 인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함정은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 때 발생하므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3문단에 따르면,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 유동성은 감소한다. 4문단에 따르면, 이 경우 가계의 소비는 줄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며, 기업의 생산과 고용, 투자가 축소되어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물가는 안정된다. <보기>는 금융 당국이 한 번에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단행하였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중 금리 역시 상승하여 소비나 투자가 줄고 물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하 정책

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업인이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부담스러워질 것을 예측하고 공장 확장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장장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을 예측하고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은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행원이 저축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23~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가) 이원익, 「고공담 주인가」, (나) 문태준, 「돌탑과 잔돌」

(가)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조선 중기의 이원익이 지은 가사로, 나라의 신하들을 농사짓는 집안의 종들에 비유하여 집안의 무너진 살림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종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전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여 상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 문태준, 「돌탑과 잔돌」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잔돌이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돌탑을 쌓을 때 잔돌이 없으면 돌탑의 수평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인식을 인간 세상의 삶으로 확장하여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구체적 청자로 설정된 상전에게 전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삶, 즉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 (나)는 모두 부제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나)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뿐 화자의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글쓴이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A]에서는 ‘~거든, ~고’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B]에서는 ‘~ 사람도 있고’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나 글쓴이의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B]에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이 활용되고 있다. ② [A]와 [B]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 반어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B]에 역설

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된 상전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B]에서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행동 변화를 호소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25. [출제의도]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한다.

ㄴ. 글쓴이는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하는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글쓴이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툰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 주는 사람’을 ‘잔돌 같은 사람’이라 말하며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ㄱ. 글쓴이가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ㄷ. 글쓴이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는 설의법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예전에는 살림이 이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소 먹이는 아이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마를 능욕’하는 것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피로 제 일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풀어헤치거나 뺏히거나’는 당파를 결성하는 모습을, ‘혈뜯거나 돕거나’는 서로 다른 당파끼리 당쟁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핀 것’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라가 어지러운 책임이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은 종의 행동을 나타낸 말로, 이를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서로 업고 업혀서’는 큰 돌과 잔돌이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므로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도’는 ‘집안의 법도’를 의미하므로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집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잔돌’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은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잔돌이 없으면 돌탑이 수평을 이루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③ ‘낮잠만 자는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핀 꽃은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⑤ ‘크게 기운 집’은 집안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우뚱하는 돌탑’은 돌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필요한 큰 돌이나 잔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이는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28~33] (인문 복합) (가) 권석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나)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가) 권석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아는 불안감이 생긴다.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또한 어린 시절 해소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은 성인이 되어 재현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된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 이부영, ‘분석심리학 이야기’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의식은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으로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인간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개별화라 한다.

28.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분트의 실험심리학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무의식을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해석한 융의 분석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정신 전환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자아는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구분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헤세의 우울증은 유년기에

느낀 불안감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융에 따르면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므로, 자아와 그림자의 통합은 내면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헤세의 초자아는 발달하게 된다. ②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헤세의 불안감은 타고난 자유분방한 기질에서 비롯한 원초아의 요구와 엄한 아버지의 교육으로 내재화된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자아가 이를 조정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프로이트에 따르면 헤세의 작품 창작은 어린 시절 생겨난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승화’의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나)의 융에 따르면 헤세의 작품 창작 활동은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되어 헤세의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융에 따르면 헤세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면이 점점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주장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또한 (나)의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통합되어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이론 모두 정신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진술하지만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자아는 의식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원초아가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은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를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열등한 자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무의식에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란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는 개별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은 아니다. ③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면서, 정신세계를 이루는 정신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므로,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④ 정체성의 실현은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전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뀜.’이다.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돌.’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순환’이다.

[34 ~ 37] (현대소설) 윤홍길,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뱃대지」

이 작품은 윤홍길의 『소라단 가는 길』에 실려 있는 연작소설 중 한 편으로, 하인철이란 인물이 6·25 전쟁 당시 유년 시절의 체험을 고향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액자소설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린 ‘나’의 순진한 시각을 통해 창권이 형의 활약과 몰락의 과정을 전달함으로써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대화 중 일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창권이 형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와 창권이 형, ‘나’와 어머니, 창권이 형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③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④ ‘회중시계’와 관련된 ‘나’의 느낌을 서술한 부분은 있으나,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나’이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열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창권이 형이 쫓기대회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니다. ‘나’는 쫓기대회에서 군복 차림의 인물이 연단에 오른 것을 직접 보고 눈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식당에 돌아온 창권이 형이 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연단에 올랐던 인물이 창권이 형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

[오답풀이] ① ‘나’는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다. ③ 창권이 형은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히 붙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④ 창권이 형이 퇴원한 뒤 어머니가 그를 ‘눈엣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으며, 창권이 형은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⑤ 창권이 형이 쓴 혈서가 쫓기대회에서 공개될 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했고, 어머니는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골갈잡게 여’겼다고 했으므로, 어머니는 창권이 형이 쫓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상징적 소재의 의미를 이해한다.

교표는 창권이 형의 학력을 위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교표가 너무 번뜩이면 새것으로 보이는 교표가 눈에 띄게 부자연스럽게 보여 창권이 형이 가짜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쉽게 탄로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창권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은 교표를 통해 은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창권이 형은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스스로 ‘진짜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고, 스스로 ‘가짜배기 나이롱 고등과 학생’이라며 ‘천연덕스레’ ‘히히거’리며 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③ 교표는 쫓기대회에서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창권이 형을 고등학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교표 때문에 창권이 형이 쫓기대회에서 맡은 역할이 축소되지도 않았다. ④ 창권이 형은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자신의 학력 위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는 ‘회중시계’가 창권이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 때’를 ‘증언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리고 창권이 형은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창권이 형에게 ‘유일한 전리품’으로 남겨진 ‘회중시계’가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 형의 고뇌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나’는 어리기 때문에 ‘멧세지’가 무엇인지 몰라 ‘멧돼지’로 오해한다. 이러한 ‘나’의 오해는 꺾기대회에서 주장되는 비장한 멧세지를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웃음을 유발한다. ② 꺾기대회의 사회자가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창권이 형을 ‘열혈 애국 청년’으로 소개하므로 창권이 형의 ‘손가락들’은 애국심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혈서를 쓰느라 그의 손가락이 ‘좀체 아물 새가 없’다는 것은 창권이 형이 꺾기대회에 모인 군중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이용되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③ 창권이 형은 아침 일찍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온다. 국민학교 졸업에 불과한 인물이 꺾기대회에서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을까 봐 권력층이 그에게 고등학생 흉내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난다. ④ 창권이 형이 ‘시위대의 선두에’ 선 것은 권력층에 편승하여 애국 학도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 욕망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만용’을 부려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는 비극으로 끝남으로써 그의 욕망이 부질없음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다.

[38 ~ 42] (기술) 이준엽,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이 글은 OLED 소자를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화면 내부 기관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여 야외 시인성을 개선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다. 명암비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한지와 관련된 개념이며,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외부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데, OLED 소자를 사용한 스마트폰에서는 편광판과 위상지연필름을 활용하여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줄임으로써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인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5문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또한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과 6문단을 참고했을 때,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므로 외부광이 일반적인 빛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문단에 의하면 햇빛은 외부광에 해당되므로, 햇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 의하면 OLED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③ 2문단에 의하면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므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높아진다. ④ 1문단에 의하면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야외 시인성이 대상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 의하면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관에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자이다. 그러므로 OLED가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 3문단에 의하면 암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화면이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도 낮아진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④ 2문단에 의하면 명암비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⑤ 1문단에 의하면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높아져서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투과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편광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편광판은 OLED에서 방출된 빛 중 편광판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차단시켜 빛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OLED에서 방출된 빛이 외부광처럼 편광판에 일부 차단되어 빛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의하면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여 해당 색의 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4문단에 의하면 OLED가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명암비 계산을 어렵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4문단에 의하면 빛의 세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림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b를 거친 빛은 원형 편광이며,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선형 편광이므로, 둘은 같은 형태의 편광이 아니다. 또한 기관은 편광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므로, b를 거친 빛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뀐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 6문단에 의하면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는다. ② 5, 6문단에 의하면 편광판을 거쳐 위상지연필름으로 나아가는 빛은 선형 편광이다. 선형 편광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빛 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빛이다. ④ 6문단에 의하면 기관에 반사되어 다시 위상지연필름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⑤ 6문단에 의하면 기관에 반사되어 다시 위상지연필름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편광판 투과축의 수직 방향이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구현하다’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구현한다’를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고르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혼재되다’는 ‘뒤섞이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혼재될수록’은 ‘뒤섞일수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존재하다’는 ‘현실에 실재(實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며, ‘있다’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존재하는’은 ‘있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단축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단축되는’은 ‘줄어드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방지하지’는 ‘막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3 ~ 45] (고전산문) 작자 미상, 「금방울전」

전생애 남해 용왕의 딸이었던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활약상을 보여주는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금방울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룡의 위기 극복과 임신양명을 돕고, 서사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마지막에는 여성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성 영웅 소설로 평가받는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변 씨는 잠자는 해룡을 직접 부르고 있다. 해룡이 얼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이상한 일이니 두고 보자고 소룡에게 이야기 할 뿐,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해룡은 방아질을 하다가 얼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금방울의 도움으로 살고, 방아질, 비절도 금방울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변 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해룡은 얇은 홀옷만 입고 추운 겨울날 밤에 방아질을 하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④ 해룡은 자신의 방에서 금방울을 발견하고 잡으려 하지만 방 안을 굴러다니며 잡히지 않는 금방울을 신통하게 여겼다. ⑤ 금방울은 해룡이 호랑이를 잡도록 도와준 후 해룡이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볼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나, 해룡이 집에 돌아와 제 방에 들어가 보니 금방울이 방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변 씨는 해룡에게 구호동 논밭을 일굴 것을 제안하며, 해룡도 장가를 가고 변 씨와 소룡도 잘살게 된다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다. 즉 해룡이 구호동에서 논밭을 일구는 것이 변 씨와 해룡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룡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해룡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② 변 씨는 해룡이 논밭을 일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해룡으로 인한 손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변 씨는 해룡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입장을 수정하고 있지도 않다. ⑤ 변 씨는 해룡에게 구호동에 가서 논밭을 일굴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 뿐 해룡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해룡이 집에서의 첫 번째 위기와 구호동에서의 두 번째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변 씨는 해룡을 걱정하는 척,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해룡은 구호동에서 돌아와서도 변 씨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며 변 씨에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변 씨의 이중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해룡의 첫 번째 위기는 집에서 방아질을 하면서 얼어 죽을 뻔한 것이고, 두 번째 위기는 호랑이가 나오는 구호동에서 짐승에게 해를 입을 뻔한 것이다. ② ㄱ에서는 해룡에게 아이가 건디기 어려운 추위에 방아질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고, ㄴ에서는 해룡에게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서 논밭을 일구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③ 해룡이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한 뒤 변 씨는 금방울의 도움이 있던 것을 모르고, 해룡의 요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뒤 해룡을 오래 두었다가는 화를 당할 것이라 생각해, 해룡을 죽일 계획을 생각하게 된다. ④ 금방울은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룡의 방을 따뜻하게 해 해룡의 목숨을 구하고,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해룡을 공격하는 호랑이를 공격해 제압한다. ㄴ과 ㄹ에서 해룡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금방울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다.